

朴祥 詩의 선미적 情趣

金銀洙*

〈차례〉

- I. 生涯
- II. 歷史意識과 선미적 節義
- III. 선미적 情趣의 詩
 - 1. 牧民官으로서의 선미적 情趣
 - 2. 修身과 崇儉의 선미적 情趣
- IV. 맺음말

I. 生涯

朴祥(성종5~중종25, 1474~1530)은 자는 昌世, 호는 訥齋로 광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松都에서 살았고, 祖考 때에 충청도 懷德縣으로 이주하였다가, 세조의 왕위찬탈이 일어나자, 부친 朴智興이 광주 芳荷洞으로 移居한 것으로 전해진다. 朴祥은 成均進士를 지낸 朴智興의 둘째 아들이다. 成均生員을 지낸 荷村 朴禎은 그의 형이고, 開城留守를 지낸 六峯 朴祐는 동생이다. 또한 선조 때의 재상이었던 思庵 朴淳은 박우의 아들인데 모두 문장과 학행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訥齋 朴祥은 23세(1496년, 연산군2)에 進士試에 급제했고, 28세 때에는 庭試 乙科에 급제하여 校書館正字가 됨으로써 벼슬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承文院校檢, 全羅都事, 弘文館修撰, 校理兼經筵侍讀官, 潭陽府使, 尙州牧使 등을 거쳐 중종 22년에는 羅州牧使가 되었다.¹⁾

그는 30년 가까운 관직생활 중에 항상 강직한 성품으로 大義를 지키는 선비로서의 기상을 잃지 않았다. 연산군 12년 전라도사로 재임중에는 자신의 딸이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는 것을 빌미로 갖은 세도를 부리던 나주의 牛夫里라는 사람을 治罪하여 杖殺하고 화를 당할 뻔했으나, 마침 中宗反正이 일어나 화를 면했다.

중종 10년에 중종비 章敬王后가 세상을 떠나자, 후비 책립문제가 생겼다. 이때, 담양부사로 있던 允昌郡守 金淨과 함께 중종의 故妃였던 愼氏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朝野에 파란을 일으켰다. 고비 신씨는 연산군 때 중신이었던 愼守勤의 딸이다. 중종반정 당시 신수근이 朴元宗·柳順汀·成希顔 등의 반정 주도 세력에 의해 逆臣으로 몰려 죽음에 따라 강제로 폐위당했고, 대신 張敬王后가 책립되었다. 놀재는 신비 폐위의 잘못을 지적함과 아울러, 반신공신인 朴元宗·유순정·성희안 등이 반정 직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명분없이 신비의 폐위를 획책한 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놀재는 大司諫 李荇, 大司憲, 權敏手의 공박을 받아 南平의 烏林驛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左議政 鄭光弼과 趙

* 광주대학교

1) 『訥齋集』附錄 年譜.

光祖 등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이처럼 놀재는 몸가짐을 엄정히 하고 끈게 처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다. 退溪 李滉 같은 이도 그의 高風卓識함을 일컬어 ‘하늘이 내린 ‘完人’이라고 할 정도였다.

놀재의 문하에는 당대의 걸출한 인물들이 수학하였다. 石川 林億齡, 俛仰亭 宋純, 棗溪 鄭萬鍾 등이 그들이다. 학자와 문인으로서 놀재의 위치도 높다. 그는 시문에 뛰어나, 조선시대의 成俔·申光漢·黃廷穰과 더불어 徐居正이후의 四家로 불리었다.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조선의 시는 종종 때에 대성하였다. 容齋 李荇이 앞장섰고, 놀재 박상과 企齋 申光漢, 冲菴 金淨, 湖陰 鄭士龍 등이 함께 나와 빛을 발했다.” 라고 했다. 그의 시는 宋詩를 배워 盛唐의 기틀을 열었다고 평한다.

이러한 논의 외에도 근래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향과는 달리 놀재 시에 나타난 선비적 취향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한다.

II. 歷史意識과 선비적 節義

놀재 박상은 충주목사로 재임하던 49세 때 『東國史略』 6권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²⁾ 『東國史略』은 왕실의 世子侍講院傳本이 될 만큼 중요한 역사서이다. 놀재가 『東國史略』을 저술한 동기와 경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평소 올바른 역사를 소망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吳澐은 『東史纂要』에서 놀재가 평소에 史家의 公辨된 秉筆을 갈망했다고 적고 있다.³⁾ 그가 殷紂王을 친 周武王보다도 孤竹君에 애정을 가진 것이라든지, 易姓革命으로 조선을 세운 李成桂보다도 절조를 지킨 李穡같은 고려의 충신들을 史書에서 소홀히 취급한 것을 아쉬워한 것도⁴⁾ 같은 이유일 것이다.

놀재의 『東國史略』은 新羅紀 2권과 高麗紀 4권 총 6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徐居正의 『東國通鑑』에 비하면 1/10의 분량에 지나지 않지만 서술방식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닌다. 『東國通鑑』이 三國以前의 역사를 外紀로, 三國以後부터 本紀로 서술한데 반해서, 『東國史略』은 三國以前의 역사를 三國과 일괄해서 권1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을 균형있게 서술하여 다른 사람과 선비들이 箕子朝鮮을 더 자세히 서술한 것보다도 큰 대조를 보인다. 이는 조선의 정통성을 찾아보고 그 정통성 속에서 역사를 인식하려는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역사인식 방법은 『東國史略』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大義와 正統性에 입각하여 이에 맞지 않은 王이나 정치집단은 업적이 있더라도 그 업적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新羅紀에 있어서 元聖王과 憲德王, 高麗紀에 있어서의 光宗과 毅宗, 崔氏武臣 集團들에게 희생된 神宗과 熙宗, 元의 간섭아래서 제대로 王의 구실을 못한 忠宣王以後 恭愍王以前까지의 王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元 간섭아래서도 國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金方慶이나, 恭愍王의 反元獨立運動을 도운 印璫·姜仲卿·崔瑩

2) 『訥齋集』 年譜 49歲條 (盡葉記) 撰東國史略 三朝鮮 四郡 二府 三韓 三國紀一卷 新羅一卷 高麗紀四卷<東國史略>은 권근의 <三國史略>과 혼동되어 권근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오던 것을 李仁榮이 <淸分室書目>에서 朴祥의 撰으로 밝히고 있고, 鄭求福도 <전북사학1집>에서 朴祥의 所撰本임을 주장하고 있다.

3) 『訥齋集』 (別集) 詩 <夢牧隱李先生> 註

4) 『訥齋集』 (別集) 詩<夢牧隱李先生> 先正韓山世已遼 人間不朽挺嶢嶢 史家秉筆公何在 昭代凌然影獨遙 孤竹蕨薇輕聖武 江都冠蓋盡神堯 秋宵邂逅驚殘夢 唔語鏘然聽舜韶

같은 무신들과 李穡·金九容·鄭夢周·朴尙衷·李崇仁 같은 무신들을 잘 평가하고 있다. 무리하게 遼東征伐을 추진한 禰王과 崔瑩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回軍을 단행하여 禰王과 崔瑩을 내쫓고 실권을 장악한 李成桂를 옹립하여 新王朝를 일으키려는 趙浚·鄭道傳·尹紹宗보다도, 이들을 견제하면서 고려왕조를 유지하려고 애쓴 李穡·鄭夢周·李崇仁·禹玄寶·金震陽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⁵⁾

이는 그가 민족의 정통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간에게서의 義理와 廉恥가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리라.

놀재의 義理思想은 愼妃復位疏 사건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여건이 故妃 愼氏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었다. 중종반정의 세 공신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 세력은 여전했고, 章敬王后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故妃 愼氏는 소생이 없었을 뿐더러, 章敬王后는 元子를 낳아 세자책봉까지 받은 터였다. 게다가, 후궁인 朴淑儀에게도 왕자가 있었고, 중종은 박숙의를 총애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제2계비 책봉문제를 누구도 선뜻 거론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소생도 없고 폐위된 愼氏를 들고 나선다는 것은 조정의 역학구도를 도외시한 무모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놀재의 논리는 분명했다. 故妃 愼氏가 폐비가 된 것은 부친 愼守勤이 혁명세력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박원종 등 혁명세력의 강압에 의한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繼妃 장경왕후가 죽은 마당에 당연히 愼氏가 복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夫婦의 道는 人倫의 시초요, 萬化의 根源이며 紀綱의 으뜸이라”는 易經과 詩經의 내용을 내세웠다. 동시에 부부의 도가 바로서야 宗廟社稷을 받들 수 있고, 天心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이 復位疏가 중종의 노여움을 산 것은 물론 朝野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물론 이로 인해 그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귀양가게 되지만, 그런 고초를 각오하고 명분과 의리에 신명을 다하는 것은 그의 투철한 역사관과 선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놀재는 생육신인 절조의 시인 金時習을 숭모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李紆·尹春年과 함께 김시습의 유고를 모아서 이행하기도 했고, 또 김시습의 <山居百絶>에 운을 따라 <山居百絶>을 창작하기도 했다. 이는 놀재가 역사의 정통성을 중요시하고 절의 있는 선비들을 흠모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놀재는 유학과 함께 조선 시대를 일관한 선비정신에 투철한 사람인 셈이다.

‘선비’의 어원은 한자어 ‘先輩’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⁶⁾

- ① 肅宗이 延英殿을 열어 (金黃元)을 불러 書籍을 맡게 하고, 매번 글을 보면서 의심이 있으면 곧 질문하곤 했는데, ‘先輩’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⁷⁾
- ② 선비를 아라실찌 (且識儒生)⁸⁾
- ③ 늘근 선비를 보시고 (接見老儒)⁹⁾

5) 朴翼煥, 『訥齋의 生涯와 史學史上的 位相』, 『향토문화탐구 조선명현연구』 4집, 11~12쪽.

6) 李東歡, 『선비정신의 개념과 전개』, 『大東文化研究』 38집 6쪽.

신재호는 이와 달리 삼국시대에 ‘수두’ 敎道의 一團을 ‘선배’·‘선비’라 일컫고 이를 吏讀字로 ‘仙人’ 혹은 ‘先人’이라 기록한다고 했다.

7) 『高麗史』 列傳 10권 金黃元 (肅宗開延英殿 召掌書籍 每觀書有所疑 則輒質之 呼爲先輩而不名)

8) <龍飛御天歌> 80장.

9) <龍飛御天歌> 82장.

①에서 ‘先輩’는 앞서가는 사람, 또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③에서는 ‘儒生’·‘老儒’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先輩’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말의 ‘선비’로 환치하고 있다. 이같은 ‘선비’가 한자어 ‘先輩’와는 달리 ‘儒’를 가리키게 된 것은 朱子學의 수용으로 경칭할 대상이 ‘文人’에서 ‘儒’로 바뀐 고려 후기의 문화적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¹⁰⁾ 그리고 조선조 초기에 儒學이 융성해지고 儒學徒들을 선망하면서 ‘先輩’ ‘儒學徒’ ‘선비’를 같은 의미로 인식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선비 의미로 ‘士’가 등장하게 되는데, ‘儒’와 같은 의미로 ‘士’가 쓰이게 된 것은 士林派가 세력을 떨칠 무렵이 아닌가 한다.

辭典的 의미로는 ‘士’는 ‘卿大夫之通稱·吏’의 개념이 짙고, ‘儒’는 ‘學者之稱·道德者之稱·孔子徒’의 개념(中文大辭典)이다. 이걸 보더라도 ‘士’는 學術보다는 벼슬에 가까운 의미였고, ‘儒’는 벼슬보다는 학술적인 것을 가리킨 말이었다. 그런데 ‘士’를 한결같이 ‘선비스(오늘날의 선비)’로 새긴 것은 사림과의 도학적 이념과 정치적 여정이 관련된 것으로 본다. 16,7세기에 나온 千字文의 새김을 보면 내각문고본·경인본·칠장사본·갑술본 등 대부분이 ‘선비스’로 새기고 있으며, 광주본과 대동읍본에서만 ‘계츄스’ ‘도숫스’로 새기고 있다.¹¹⁾

오랜 세월을 두고 변천해온 언어의 궤적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측컨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선비’라는 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先輩’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儒’·‘士’의 의미로 쓰였고, 중국의 사전적 의미와도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士’를 더 선비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해왔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비정신은 무엇인가. 孟子는 士에게 귀중한 것은 尙志라고 했다. 尙志는 仁과 義를 제고해 뜻을 고상히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의 尙志가 주로 義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節義와 廉恥를 선비정신의 근간으로 본 것이다. 이황은 선비는 남의 형세나 작위에 눌리지 않고, 그 형세에 불따르거나 형세에 힘입지 않아, 필부로서 천자를 베타도 참람되지 않으며, 왕공으로 평민에게 몸을 낮추더라도 욕되지 않으니, 이것이 선비가 귀하고, 공경받을 만한 소이이며, 節義의 명분이 성립되는 이유라고¹²⁾ 했다. 또 기대승은 학문을 하는 방도는 자기를 닦는 데 있고, 자기를 닦는 방도는 儉素함을 숭상하는 데 있다고¹³⁾ 했다.

이상에서 보면 선비정신은 공맹정신의 실천인 修身이요, 節義·廉恥·崇儉 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박상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철저히 실천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Ⅲ. 선비적 情趣의 詩

선비의 개념을 節義·廉恥·修身·崇儉에 두고 놀재 선비시의 양상을 보고자 한다. 선비시라고 한다면 몰라도, 節義詩라고 한다면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다. 絶命詩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절명시가 절의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절명시는 절의시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절의시가 더 폭넓은 의미다. 節義는 絶命이 아니라 節操나 義斷의 의미다. 節義詩라고 할

10) 李東欽, 같은 논문, 8쪽.

11) 손희하, 「새김어휘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12) 李滉, 『退溪集』 12권, <擬與豊基郡守論書院事>(古之士 固不屈於人之勢位 …(중략) … 故以匹夫 而友天子不爲僭 而王公而河韋布不爲辱 此士所以可貴可敬 而節義之名所以立也)

13) 奇大升, 『高峯續集』 2권, <上從兄書>

때, 文天祥의 <正氣歌>나 黃梅泉의 <絶命詩>같은 작품도 기대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회적 여건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또 문학은 絶命詩보다는 節義理念을 예술적 가치로 숙성시키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평온한 시대적 상황이라 해서, 또는 극단적 감정이 표출되지 않은 작품이라 해서 선비의 節義的 문학정서를 도외시 할 일은 아니다. 節義라는 말의 본질은 원래 절대절명의 순간 극단적 행동 보다는, 선비적 가치로 재단하고 절제하는 행동에 근본이 있기 때문이다. 선비의 가치관인 仁義도 본래는 그런 의미였다. 仁은 사랑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義는 절제에 가치를 두고 있다.¹⁴⁾ 결국은 이러한 자기 檢束과 節制의 義理의 뿌리요, 불의에 절명시와 함께 목숨을 내던지는 것은 즐기며 가지다.

1. 牧民官으로서의 선비적 情趣

옴의 실천은 부끄러움을 아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節義와 廉恥는 뿌리를 같이 한다. 절의와 얽치는 도리를 다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도리는 ‘자리 지키기’이다. 선비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있는 힘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일,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찾는 일도 결국 자리 지키기이다. 그러나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목숨을 버리고 丹心을 보이는 것도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絶命詩가 심금을 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訥齋는 絶對絶命의 시대를 산 것은 아니지만 어지러운 시대를 산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東國史略』을 저술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愼氏復位疏」를 올려 선비의 길을 걸은 것이다. 그는 선비의 도리를 실천한 학자와 목민관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그의 삶의 궤적은 그의 문학작품에서도 나타난다.

晨坐¹⁵⁾ 새벽에 일어나 앉아서
 衣冠晨坐待衙時 새벽에 의관 갖추고 집무시간 기다리며
 西望青山儼若思 서쪽 청산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네.
 朝日爛晶垂帝典 아침 해 빛나 堯典의 뜻 드리우는데
 秋雲枯淡過郊詩 가을구름 맑기가 孟郊의 시보다 더하다.
 欲求省事須無欲 번잡한 데서 벗어나려면 욕심 없애야 할 일,
 如到誠身在勿欺 성실하게 하려면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지.
 秉燭功夫加老境 늙으막에 촛불 밝혀 공부 더하면서
 閑來點檢起新知 한가히 점검해보면 새로움이 생기네.

이 시에서 시인은 誠과 義의 뿌리를 살피고 있다. 물론 시인이 誠이나 義를 의식하고 작품을 쓸 수는 없다. 다만 독자의 입장에서 시인이 자기 道理를 다하고 있다고 본다면, 義의 개념이고, 誠實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誠의 개념이다.¹⁶⁾

14) 『禮記』 9권. ‘仁主於愛 義主於斷 別以用之 必當其宜’

15) 『訥齋集』 續集 1권.

16) 義는 正當性(春秋無義戰, 孟子)이요, 誠은 眞實性(誠者天之道, 中庸)이다. 동시에 仁·義·禮·智는 서로 분별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은 모두 誠에 포괄되는 개념이다. 義의 개념 志操가 誠의 개념이 되는 것(志操精果之誠, 新書道術)은 같은 이유다.

작품 전반부에서는 목민관으로서의 道理를, 후반부에서는 학문과 수행의 자세를 잃지않고 있는 선비의 굳건한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결연히 私欲에서 벗어나 慎獨의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節義의 뿌리를 복돋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題昇平館衙¹⁷⁾ 승평 관아에 쓰다
 舊識昇州路 전부터 알고 있던 승주 길,
 重尋八馬碑 다시 팔마비를 찾는다.
 煮租鹽絕戶 조세소금 굶노라 집주인들 없어지고,
 包貢橘無枝 상납하느라 귤나무 가지도 사라졌다.
 白雨秋聲顛 소낙비에 가을 소리 떨리고,
 西風暑氣移 서풍에 더위도 지나간다.
 纍纍都護印 추레한 도호의 직인,
 嫋嫋鬢絲邊 바람에 흔들리는 귀밑 머리어.

昇平은 지금의 승주다. 八馬碑는 고려 때 이 고을 수령 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다. 최석이 고을 수령 임기가 끝나 떠나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선정을 기리며 이사에 필요한 말 일곱 필을 선물로 주었다. 얼마후 최석은 말 여덟 마리를 돌려보냈다. 그 사이에 새끼 한 마리가 더 생긴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팔마비는 박상 시절에도 있었나 보다.

관리로서 놀재의 고뇌가 어려 있는 시다. 이 시는 起承轉結의 전개가 뚜렷하고, 결과야 어쩔든 짜임상 절창이다. 起에서 ‘전부터 알고 있었다(舊識)’거나 ‘다시 찾는다(重尋)’는 시어가 시인의 ‘관심’과 ‘소망’을 표상한다. 관심은 崔碩같은 청백리요, 소망은 그같은 청백리가 되어보는 일이라. 承에서는 ‘고을이 잘 다스려지고 태평하다’는 昇平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을은 황폐하다. 轉은 비내리는 삭막한 가을을 그리고 있지만, 이는 놀재의 또 다른 마음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結이다. 특히 結聯의 ‘추레한 도호의 직인’은 무능한 목민관의 형상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귀밑 머리’는 늙고 쇠약한 자신의 형상이다. 이를 통해서 놀재의 선비로서 고뇌찬 모습을 읽을 수 있다.

復疊前韻示石川¹⁸⁾ 다시 前詩의 운으로 지어 石川에게 보여준다
 官居何異小林禪 벼슬살이 小林寺 參禪과 무에 다르게 무언가.
 恬淡前頭養浩然 앞길 두고 담담히 호연지기 기르는거라
 今世與違從白髮 이 세상은 어긋나서 백발만 무성하니
 古人相後望青天 성인에게 뒷일 물으며 하늘을 우러르네.
 朝暉照檻紅深麗 아침햇살 난간 비추니 붉은 빛 곱고
 露篠含窓翠愈娟 이슬 맺힌 대숲 창에 어려 푸른 빛 더욱 좋다.
 危坐不言誰更會 옷깃 여미어도 말하지 않으니 누가 또 알겠는가.
 拔籤時復閱陳篇 이따금 서상대 뽑아 옛글을 읽어본다.

17) 『訥齋集』 3권.

18) 『訥齋集』 5권.

벼슬살이가 참선과 같다고 하니 이만저만한 비약이 아니다. 참선과 화두 타파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인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선방에 드는 승려처럼 政事에 매달린다. 시인의 화두는 經國濟世이리라. 그러나 백발만 무성하고 세상일은 쉽지 않다. 轉聯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세상은 복잡하지만 자연은 아름답다는 말일게다. 성인에게 묻고 서책을 보고 그래도 인간세상사는 답이 없다. 참선이 스스로 깨쳐야 하는 과정이듯이 정치도 한가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사심이 없듯이 정사를 처리할 때 무심한 경지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벼슬살이가 참선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은 그래서 批點과 貫珠를 받을 만한 명구요, 시인의 선비정신의 품격을 드러낸 정곡이다.

喜雨詩¹⁹⁾ 반가운 비를 노래한 시

(前略)

德香昭假捷 좋은 향으로 밝은 뜻 빨리 움직여
 玄造轉回便 현묘한 조화 빨리 돌아가게 했도다.
 甘澤旋吹射 달콤한 은택 문득 쏘는 듯 퍼부어
 蒼虛似漏穿 푸른 하늘이 뚫려 새는 것 같다.
 龍腥留草際 용의 비린내 풀 가에 남아 있고
 魃跡謝雲邊 가뭄의 자취 구름 가로 사라졌다.
 焦卷還絞翠 타서 오그라든 것 다시 푸르름 펴내고
 沮洳劇傳餽 진퍼리에는 곤죽되게 생긴다.
 願輸千頃稻 넓은 논이 벼 살렸으면 했더니만
 終起萬家烟 끝내 수많은 백성의 집 연기 이는구나.
 宗社金甌妥 종묘사직이 흠없이 안정되고
 乾坤玉燭妍 온 세상은 사계절이 고루 아름답다.

(後略)

오언배율의 일부이다.

‘喜雨(반가운 비)’를 소재로 한 시는 더러 보인다. 杜甫의 「春夜喜雨」가 있고, 蘇軾의 「喜雨亭記」도 그러한 시다. 두보의 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내리는 봄비의 은근한 생명력을 그렸다. 때맞춰 소리없이 내리는 봄비가 만물에 소리없이 불어넣는 생동감의 표현이다.²⁰⁾ 그러나 눌재의 「喜雨」는 소식의 「喜雨亭記」에 더 가깝다. 둘다 애타게 기다리던 가뭄 끝의 비요, 목민관으로서 백성의 굶주림을 생각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이다. 희우정기는 소식이 鳳翊府 僉判에 임명된 이듬해 관아에 정자를 짓고 있었는데, 한 달여를 가물다가 정자가 낙성되던 날에 비가 내려 정자 이름을 喜雨亭이라 하고 「喜雨亭記」를 지었다. ‘하늘이 옥을 뿌려준다 해도, 굶주리는 자 그것으로 곡식을 삼을 수 없는데/ 한번 비가 내리자 사흘이나 온 것은, 그 누가의 힘었는가? / 백성들은 태수 덕분이라 하지만, 태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²¹⁾ 라는 시구는 가뭄 뒤의 반가운 단비를 맞이하는 기쁨을 그리고 있다.

19) 『訥齋集』 6권.

20) 杜甫 「春夜喜雨」 ‘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隨風潛入夜 潤物細無聲 (後略)’

21) 蘇軾 「喜雨亭記」 ‘(前略)使天而雨玉 飢者不得以爲粟 一雨三日 伊誰之力 民曰太守 太守不有 歸之天子 天子曰不然(後略)’

그러나 놀재의 시는 목민관의 절실함이 더하다. 소식의 「희우정기」가 낭만적이라면 놀재의 「희우」는 더 현실적이다.

2. 修身과 崇儉의 선비적 情趣

修身은 儒學의 근본이요 선비가 추구해야 할 기본 덕목이다. 大學에서 修身이 齊家와 治國의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修身이나 崇儉이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는 문학예술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訥齋에게서는 이것이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예술적 정취로 농익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학이 사람의 감성이 사물에 부딪쳐 촉발되는 흥취라고 한다면, 다음에 예시한 놀재 시 몇 편은 그의 감성이 인간의 선의지에 작용하여 빚어낸 아름다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들은 앞 장에서 들었던 시작품들에 비해 훨씬 더 문학적이고도 근원적인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題愛蓮軒²²⁾ 애련헌에서 쓰다

濂溪遺所愛 주림계가 사랑하던 글 남겨주어
有目謾粉如 눈 있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보여준다.
濯濯淤泥上 흙탕물 위에 깨끗이 돌아나
亭亭風雨餘 비바람에도 깨끗이 서 있다.
長來人折直 늘상 사람들이 곧은 줄기 꺾어
通處我知藺 구멍 있는 곳에 연꽃 있었음을 본다.
臭味眞深會 냄새로 정말 깊이 알게 되거니와
猶須自作疎 오히려 스스로 멀리 있어야 한다는 것을.

宋나라 때의 周濂溪는 「愛蓮說」을 지어 연꽃을 꽃 중의 君子라고 했다. 그는 연꽃을 ‘진흙에서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며 오염하지 않으며 가운데로는 통하고 밖으로는 곧다’²³⁾고 했다. 여기서 연꽃은 군자의 상징이요, 군자는 德을 이루고 善行을 힘써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²⁴⁾ 따라서 군자는 선비를 달리 지칭한 말이라 할 수 있다. 흙탕물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비바람에도 亭亭하게 서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은 막힘이 없이 통하고 겸허하다는 뜻일 것이요, 길이 곧다는 올바르고 강직하다는 뜻일 것이다. 연꽃이 ‘香遠益清’이라고 했듯이 선비 또한 그러하다.

茅亭²⁵⁾ 모정을 짓고

略)

22) 『訥齋集』 3권.

23) 周敦頤 「愛蓮說」(前略)子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夭 中通外直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後略)

24) 『論語集註』 <學而> ‘君子成德之名’
『禮記』 <曲禮> ‘博聞彊識而讓敦善行而不怠謂之君子’

25) 朴祥, 『訥齋集』 3권.

費不徵王祿 경미야 왕록 필요치 않고,
 經營一日間 짓는 건 하루면 되지.
 易安忻寄傲 거칠것없이 사니 편안해 기뻐라,
 大庇媿俱歡 때물려 놀려했던 큰집이 부끄럽네.
 味討書千卷 음미하고 찾으면 모두가 책이요,
 淸揮竹萬竿 정신 맑게 깨우쳐주는 건 수많은 대나무.
 朝朝雲出岫 아침마다 산봉우리에서 나오는 구름,
 脈脈對南山 물끄러미 남산을 마주하네.

띠로 이은 정자를 지은 소감을 그리고 있다. 茅亭은 나뭇가지 몇 개에다 띠풀을 얹으면 되니, 큰 俸祿을 받는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어도 지을 수 있다.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이다. 사람이 집을 휘고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집은 심신을 편안히 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집에 얽매어도 안되고, 집으로 위세를 부리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大庇는 고대광실 큰집을 뜻한다. 고래등같은 집을 지어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요란을 떨며 즐기고 싶은 생각도 없겠는가. 그러나 그건 선비의 자세가 아니다. 선비는 집안에 거처하는 동안에도 存心修行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한다. 존심수행의 마음은 崇儉에 있다. 겸양겸소한 마음으로 潛心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사물이 배움의 대상으로 다가선다. 이 시의 핵심은 그 경지를 체득한 데 있다. 조그만 茅亭에서 주위의 자연을 살펴보면, 모두가 큰 깨우침을 주는 책이 된다. 또 사계절을 두고 과랑게 節操를 내보이고 있는 대나무는 흐트러지는 선비의 마음을 채찍질해주는 스승이 된다.

宿雙峯寺贈山中老宿²⁶⁾ 쌍봉사에 묵으며 산중의 노스님에게 주다
 搏地深雲襯馬蹄 느닷없이 깊은 구름 말발굽에 닿더니,
 石門歸照向淒淒 바위돌 문에는 저녁놀 차갑게 어려있네.
 金銀佛寺雙峯下 쌍봉우리 아래 단청한 예쁜 쌍봉사.
 風雨荒碑一水西 개울물 서쪽 비바람에 씻긴 낡은 비석.
 堂吼法雷僧未定 우렁우렁 엄불소리, 중들도 소란한데
 林飄殘磬月應低 지는 달아래 숲에는 잦아드는 풍경소리.
 此身如入廬山路 이몸 여산길에 들어선 것 같으니,
 他日重尋過虎溪 후일 다시 찾으면 호계를 지나시라.

화순 쌍봉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시다. 석양에 쌍봉사에 다달아 저녁예불이 끝나고 적막에 휩싸이는 한밤중까지의 절풍경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각적인 데서 청각적인 데로, 그리고 내면적·심정적인 세계로 집중시키고 있다. 전반부는 서너 줄로 절의 사실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후반부는 밤이 되어 청각적인 효과를 고조시키면서 심정적인 성찰의 세계로 수렴한다. 말하자면, 結聯에서는 제목이 말해주듯 쌍봉사의 노장스님과 마주앉아 있다. 무슨 얘기를 했건 각자 좌선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廬山과 虎溪라는 말이 암시하듯, 陶淵明·慧遠禪師·陸修靜들과 같이 선비의 情趣을 나눈 것이 중요하

26) 『訥齋集』 4권.

다.27) 놀재는 자신을 도연명이나 옥수정에 쌍봉사의 노장스님을 혜원선사에 비의하고 있다.

凌虛亭次原明韻贈羅云傑²⁸⁾

능허정에서 원명의 시에 차운해서 나운걸에게 주다

面面皆空眼眼虛 만나는 얼굴, 마주치는 눈에도 집착없이
依然此地會眞如 예나없이 이곳에서 참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
回塘下壓魚龍窟 둘러있는 연못 아래 물고기 용의 굴이 있고
曠野平連鴈鶩墟 기러기 오리 평평한 텅빈 들에 이어 있다.
桃萊社翁分臘味 桃萊의 社翁은 臘味 갈리주고
緯蕭江叟餽王餘 쑥대 밭 찌는 강 늪은이는 은어를 먹여준다.
食耕自足生事 농사로 먹고사는 것 그것대로 생활에 충분하여
名業都拋劍與書 공명에는 뜻이 없어 칼과 책 모두 버린다.

매우 치밀한 구조의 시다. 首聯에서는 천진스럽게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頷聯은 말 그대로 자연의 성품대로 따르는 魚躍鳶飛다. 頸聯은 산과 물에서 나는 사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상사를 그리고 있다. 尾聯에서는 食耕自足하는 꾸밈없는 사람들의 生事의 모습이다.

人爲가 없는 天真無垢를 느낄 수 있는 시다. 어찌 보면 人爲니 無爲니 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 ‘眞如’라고 했듯이 참모습 하나면 되는 것이다. 온갖 갈등은 人爲와 無爲, 善과 惡으로 분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시는 眞如에 뿌리를 두고, 이것을 空과 虛라는 말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집착이 없고 욕심이 없는 모습이란, 모습이 없는 모습이요, 이것이 참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功名을 쫓는 모습, 칼과 책으로 만들어 가는 삶이란 인간다운 삶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27) 중국 廬山の 東林寺는 晉나라 때 慧遠禪師가 白蓮結社를 한 곳이다. 절앞에는 虎溪라는 개울이 있었는데, 慧遠禪師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지조 있는 선비 陶淵明과 陸修靜이 혜원선사를 찾아왔다. 한참만에 이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혜원선사는 도연명과 옥수정을 배웅하며 모르는 사이에 호계를 넘어서고 말았다. 느닷없이 여산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연유를 알고 세 사람은 호계에서 서로 웃고 헤어졌다. 그래서 생긴 말이 虎溪三笑다.

28) 『訥齋集』 5권.

奉和和之贈權子醇²⁹⁾

삼가 和之의 시에 화운하여 권자순에게 주다
 錦南行色歸徠晚 나주 벼슬살이로 늦게야 돌아와보니
 無等山西五柳春 무등산 서쪽 버들숲에도 봄이로구나.
 蔬糲莫嫌居計拙 푸성귀 잡곡, 구차한 생활 싫어 마라,
 金蘭終仗處心醉 좋은 우정 변함 없이 마음 즐길 곳이다.
 有書萬卷家還富 책이 만 권이라 집안 아직 넉넉하고
 栽竹千竿興不貧 대나무 많이 심어났으니 흥이 넘쳐나리라
 疎懶目深遠世態 어설피고 게으른데 눈길 돌려 세상과는 멀어
 共君堪作耦耕人 그대와 함께 밭갈 사람 될 만하다.

和之는 李淵谷이다. 權子醇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름 없는 고향마을 친구인 것 같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놀재가 나주(錦南은 나주의 옛 이름) 목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늦게야 돌아왔다’는 말에서 고향생활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 짐작되고, ‘그대와 함께 밭갈 만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놀재의 심성이 맑게 드러난다. 지체도 없는 시골 친구와 깊은 마음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을, 공명을 일삼지 않는 ‘선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화사한 분위기의 봄, 새로운 시작과 다짐을 의미하는 봄의 장치도 좋으려니와, 굶실거리는 봄의 사물들도 잘 배치하고 있다.

III. 맺음말

訥齋 朴祥의 선비적 정취의 시를 살펴보았다.

그는 역사저술을 통해서도 정통성을 중시하는 역사의식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선비의 품격을 굳건히 지키는 지식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비의 개념을 節義·廉恥·修身·崇儉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놀재 시의 선비적 정취의 시를 찾아서 정리했다. 그는 보통의 사대부와는 달리 절의의 정서를 시작품에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삶에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한 데 대해 갈등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청빈한 서민적인 삶을 즐기고 있다.

물론, 訥齋 朴祥의 시를 한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600여 편의 시체에, 1,100여 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일 뿐만 아니라, 賦·文記 등 다른 문학자료들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놀재 시의 극히 단면적인 한 부분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보통의 문사들과는 다른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節義 있는 선비로서 기개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선비적 정서와 취향은 그의 문학작품의 중심 이리라.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진솔한 모습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29) 『訥齋集』 5권.

참고 문헌

『訥齋集』

『高麗史』列傳 10권

奇大升, 『高峯續集』 2권

『禮記』

朴翼煥, 「訥齋의 生涯와 史學史上的 位相」, 『향토문화탐구 조선명현연구』 4집.

손희하, 「새김어휘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李東歡, 「선비정신의 개념과 전개」, 『大東文化研究』 38집.

K C I

<Abstract>

Emotion of a learned man in Pak Sang's poetry

Kim, Eun-soo

This paper investigated Pak Sang's poetry. Pak Sang was a great poet in Chosun Dynasty. He presented a petition for restoration of Queen Shin. In this way, he was a zealous supporter of ideal and a learned man.

This emotion of a learned man appears in his poem.

First, his poem expressed a pity of the people. Second, his poem showed original humanity. However, this tendency is related to his sense of value, and emotion of a learned man.

<논문투고일 : 2004.6.30.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